

무안군, '워커블시티 무안' 조성 총력

산책로 6개소 50.5km 조성...걷기지도자 63명 양성 등 23개 실천과제 이행
걷기동아리 지원·회산백련지 황토맨발길 조성 등 14개 신규과제 추가 발굴



무안군은 지난 19일 김산 군수 주재하에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시티(walkable city) 무안' 2024년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워커블시티 무안프로젝트는 민선 8기 대표시

화 확산 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한 무안군의 노력은 지난해 6개소 50.5km의 산책로 조성 및 산책로 위치 알림 기초번호판 85개소 설치 등 23개의 실천과제 이행으로 이어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읍면별 걷기동아리 지원 사업, 무안 노을길 걷기 및 마라톤대회 개최 등 14개의 신규 과제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또한, 무안군 워커블시티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도심 산책로 활성 방안을 수립하여 산책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워커블시티 무안은 민선 8기 대표시책으로 무안군이 지향하는 워커블시티는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있다"며, "어느 지역의 군민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총 2124만원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60% 지원

함평군은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능형철선 울타리, 경음기되치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총 2,124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은 지난해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10개

농가에 2,032만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설치대상 지역이 함평군에 소재하는 농업 경영인이 신청자격 요건으로서 그 신청농가의 피해발생빈도,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함평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농림부의 FTA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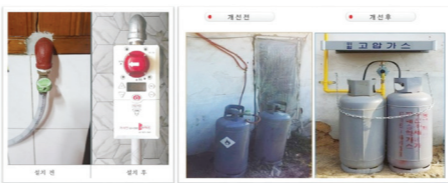
금 등 관련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을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61-320-1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준기자

영광군, 가스안전차단기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신청 접수

총 7000만원 투입 자부담 없이 450가구 혜택...3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영광군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하여 '2024년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폭) 및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자부담 비용(20%)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장치(타이머폭) 설치(250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배관 시설개선사

업(200가구)으로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스안전장치(타이머폭) 설치사업'은 기존의 가스밸브 위에 부착하여 미리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체나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유아~초등학생 참여, 발레·판소리·미술·주산·암산 등 13개 과목

영암군이 다음달 4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2024년 1기 문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3/11~6/29일 16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1기 문화교육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목은 유아 '발레', 초등학생 '판소리' '라탄공예' '미술' '주산·암산' 등 총 13개다.

특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위해 '점핑'과 '가야금' 과목 등이 신규 개설됐다. 문화교육의 수강료와 재료비는 무료다. 단, 발레복과 주판은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수강신청은 영암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내버스 노선개편, 내달 4일 본격 시행

기존 14개 노선서 8개 노선으로 축소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다음달 4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4개 노선에서 6개 노선이 줄어드는 8개 노선(간선3, 순환3, 지선2)으로 축소했다. 시계의 노선은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공공형 버스인 낭만버스는 대양산단과 고하도 해상케이블카를 출퇴근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횟수를 늘려 운행한다.

개편된 버스 번호는 간선 1·2·3, 순환 66·77·88, 지선 10·20(20-1), 낭만버스는 11·22·33으로 부여했으며, 노선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선 번호 앞에 각각 간선, 순환, 지선 한글 표기를 추가했다. 이번 노선개편은 전문용역업체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교통카드 데이터,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인구, 버스 운행데이터 등)한 결과를 토대로 교통수요와 통행 패턴을 반영해 추진됐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신의면, 바다 정화 활동으로 초록 봄 맞이

여성단체회원들 아름다운 바다 환경 살리기에 주력

신안군 신의면에서는 지난 2월 19일 여성단체회원 30여 명과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상태서리 오리평 해안가에서 새봄 맞이 해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안 정화 활동은 해안가에 방치된 페스티로폼, 페어구, 페어망, 생활 쓰레기 등 해양폐기물 약 15톤을 수거했다. 여성단체협의회 박정애 회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을 지

키는 데 동참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지속해서 청정해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안 정화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의면 김순석 면장은 "갯은 날씨에도 함께 해 준 여성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봄맞이 해안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환경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